# · · · · · · · · · · · · ·

# Tech & Stock

## 하나금융투자 4차산업 포트폴리오

글로벌 리서치팀(3771-7793, 8547, 8094)

#### ▶ 하나금융투자 4차산업 포트폴리오 종목별 수익률 현황 (7/5일 종가 기준)

편입 종목	주간수익률(%)	PER(間)	ROE(%)	매출액 성장률(%)	EPS 성장률(%)	실적발표일
애플 (AAPL.US)	3.2	17.8	57.3	(3.3)	(10.2)	2019-07-30
아마존닷컴 (AMZN.US)	2.6	54.1	25.8	18.1	94.5	2019-07-25
알리바바 (BABA.US)	2.3	25.5	16.5	34.6	34.7	2019-08-22
바이두 (BIDU.US)	(0.9)	25.0	6.4	7.2	(58.0)	2019-07-30
페이스북 (FB.US)	1.8	22.8	23.0	24.3	13.0	2019-07-24
알파벳 (GOOGL.US)	4.6	20.5	16.1	19.5	30.5	2019-07-25
IBM (IBM.US)	2.5	10.2	66.1	(3.1)	41.4	2019-07-17
마이크로소프트 (MSFT.US)	2.3	29.9	39.7	13.2	114.2	2019-07-18
엔비디아 (NVDA.US)	(2.4)	30.3	27.7	(6.3)	(21.3)	2019-08-16
텐센트홀딩스 (00700.HK)	2.0	32.7	23.8	26.6	19.1	2019-08-14
삼성전자 (005930.KS)	(2.9)	14.0	8.6	(7.3)	(51.5)	2019-10-07
넷플릭스 (NFLX.US)	3.6	95.5	23.6	28.1	51.9	2019-07-17
소프트뱅크 (9984.JP)	2.1	8.7	13.5	1.3	(11.3)	2019-08-07
세일즈포스닷컴 (CRM.US)	1.9	55.5	14.9	23.7	7.9	2019-08-27
인텔 (INTC.US)	0.4	11.2	24.1	(3.1)	(8.1)	2019-07-25
평균	1.5	30.2	25.8	11.6	16.4	

주: PER, ROE, 매출액, EPS 성장률은 2019년 Bloomberg 조정 실적 전망치 기준(\*일부 종목은 회계기준에 따라 차기 회계연도 전망치)

#### 주간 미국 시장 동향

• 주초 미국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 재개 소식에 S&P500지수가 사상 최고가 경신하며 상승 출발. 이후 지수 상승세 이어갔으나, 미 무역대표부(SUTR)가 유럽연합의 불법 항공 보조금으로 입은 피해에 보복 대응하겠다며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해 무역갈등 우려 부각되며 상승폭은 제한. 주말을 앞두고 발표된 6월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자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 낮아지며 증시 소폭 하락

#### 주요 주가지수 수익률 추이



## 4차산업 주요 종목 주간 뉴스

#### 1) 넷플릭스 광고버전 출시가 추가 매출액 10억 달러 증가 가능 주장제기

# 상장 국가

미국

• 넷플릭스는 플랫폼에 광고 지원을 하지 않지만, 광고를 통해서 주요 지표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 광고를 통해서 잉여현금흐름을 개선시킬 수 있고 이는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 이는 2021년 이후 경 쟁심화 국면에서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

섹터

• Hulu와 같이 광고가 붙는 서비스와 광고가 없는 서비스를 모두 지원하는 것이 넷플릭스의 미래 모델일 수 있다는 의견

인터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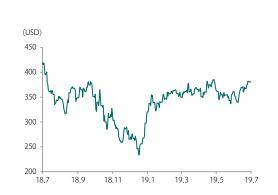
• 해당 분석가는 2020년에 광고 기반 서비스 출시 후 2021년 까지 유료가입자의 1/4 속도로 증가한다는 가정을 적용 시 매출액이 연간 10억 달러 이상 증가하고 순이익 기준으로는 7억 달러가 추가 될 수 있다고 추정

시가총액(십억달러)

166.4

• 넷플릭스는 여전히 광고 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광고 버전을 출시하는 것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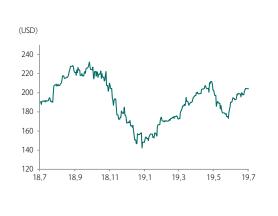
## 최근 주가 추이



### Tech & Stock: 4차산업 포트폴리오 Week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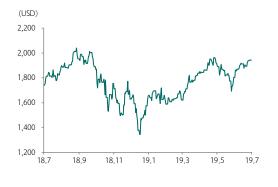
2) 애플	아이폰11, 페이스ID 대신 지문센서 탑재 中특화 모델 출시
상장 국가	• 애플이 오는 9월 공개예정인 아이폰11 시리즈의 판매가격을 낮춘 중국용 특화모델을 출시할 것이라는 소식
미국	• 중국의 글로벌타임즈(globaltimes)는 애플이 매출감소를 막기 위해 생산원기를 낮추는 방법을 모색 중이며 그 대안 중하나로 페이스ID(얼굴인식) 대신 디스플레이 내장 지문인식
섹터	스캐너 탑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 • 이에 제조 단가를 낮춰 판매가격을 내린 중국 특화 모델이
전기전자	추가될 예정 • 한편 애플은 화웨이, 오포, 비보 등 중국 브랜드들의 약진과
시가총액(십억달러)	약 5천 위안(731달러) 대 가격을 선호하는 중국 소비자들로 인해 중국 시장의 상당부분을 상실 • 고급 이미지 유지와 시장점유율 경쟁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
939.7	는 상당히 어려운 선택으로 보다 가격을 낮춘 보급형 중국 시장 특화 모델이 실제 출시될 것인지는 분명치 않음

### 최근 주가 추이



3) 아마존닷컴	2019년 프라임데이 행사는 7월 15~16일 이틀 동안 진행		
상장 국가	<ul> <li>올해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 7월 15~16일 48 시간 진행.</li> <li>작년에는 36시간 진행했음</li> <li>에코와 같은 아마존 디바이스와 TV 등을 크게 할인해주는 행사를 18개국에서 총 백만 건 이상 진행할 예정</li> </ul>		
미국	<ul> <li>아마존은 1억명이 넘는 프라임 회원 보유. 프라임데이는 중요한 연례 쇼핑기간이 되었음</li> <li>프라임데이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쇼핑 열기가 있기 때문에 유통업자들은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행시를 진행</li> <li>아마존의 프라임데이는 특히 개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쇼핑이 시작되는 행사. 유통업자 중 84%가 개학시즌 온라인 판매에서 프라임데이가 가장 중요한 시기로 간주</li> <li>올해 개학준비 시즌에 미국 소비자들은 평균 507달러(+9% yoy)를 쇼핑에 지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li> <li>프라임데이에 쇼핑 시작이 촉발되면서 대형마트 등 다른 유</li> </ul>		
섹터			
인터넷			
시가총액(십억달러)	통업체의 판매 증가로도 이어짐  •개학준비 쇼핑이 여전히 오프라인 유통매장을 통해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으나 점점 온라인 구매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		
956,6	<ul> <li>•2018년의 경우 온라인 구매 비중이 거의 10%로 약 80억 달러 규모</li> <li>•시장에서는 2019년이 아마존 프라임데이 판매액이 가장 큰해가 될 것이라고 기대</li> </ul>		

## 최근 주가 추이



#### Tech & Stock: 4차산업 포트폴리오 Weekly

#### 4) 인텔/엔베디아 미중 무역협상 재개… 최대 수혜주는 '칩 메이커'

제조업체가 상당수를 차지

## 상장 국가

미국

• 1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미중 무역 전쟁의 최대 승자는 칩메이커라고 보도

## 섹터

•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새로운 관세를 보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영향

반도체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에 제품을 판매 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금지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수혜를 했다는 분석

• 실제로 골드만삭스가 러셀1000 지수에서 중국에 높은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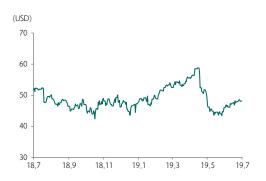
실적을 가진 회사들을 조사한 결과, 퀄컴을 비롯해 엔비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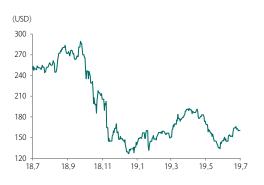
아, 브로드컴, 인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등을 포함한 칩

시가총액(십억달러)

215.3/97.6

#### 최근 주가 추이





#### Tech & Stock: 4차산업 포트폴리오 Weekly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2019년 7월 8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는 2019년 7월 8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